

DONG HYEK LIM PIANO RECITAL

CR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가장 강렬하고 매혹적인
프로코피에프,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쇼팽

CREDIA

DONG HYEK LIM
PIANO RECITAL

임 동 혁 피 아 노 리 사 이 틀

2024.2.15 THU 7:30 PM | 롯데콘서트홀

DONG HYEK LIM
PIANO RECITAL

CREZIA MUSIC & ARTISTS

2024년 2월 15일 (목)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임동혁, 피아노

쇼팽 1810-1849 폴란드

발라드 1번 사단조, Op. 23

발라드 2번 바장조, Op. 38

발라드 3번 내림가장조, Op. 47

발라드 4번 바단조, Op. 52

중 간 휴 식

CREEDIA

프로코피예프 1891-1953 러시아

피아노 소나타 제 7번 내림나장조, Op. 83

I. 빠르고 흥분하여

II. 느리고 따뜻하게

III. 다급하게

라흐마니노프 1873-1943 러시아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내림나단조, Op. 36 (1931)

I. 빠르고 흥분하여

II. 빠르지 않게 - 천천히

III. 몹시 빠르게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CHANEL.COM |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NEW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

FINE JEWELRY

7:30PM Thursday, February 15, 2024 at Lotte Concert Hall

Dong Hyek Lim, Piano

F. Chopin 1810-1849
Poland

Ballade No.1 in g minor, Op. 23

Ballade No. 2 in F Major, Op. 38

Ballade No. 3 in A flat Major, Op. 47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I N T E R M I S S I O N

CREDIA

S. Prokofiev 1891-1953
Russia

Piano Sonata No. 7 in B flat Major, Op. 83

I. Allegro inquieto

II. Andante caloroso

III. Precipitato

S. Rachmaninoff 1873-1943
Russia

Piano Sonata No. 2 in b flat minor, Op. 36 (1931)

I. Allegro agitato

II. Non allegro - Lento

III. L'istesso tempo - Allegro molto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음악평론가 유정우와 함께 하는

북유럽 클래식 뮤직 크루즈 14일

ONLY!
Club
BALCONY

북유럽의 아름다운 백야,
현대 건축 걸작 공연장에서 최정상 아티스트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도시 탐험
2024.6.15~28

- 상품가 1인 1,740만원~ (현금가/아웃사이드 캐빈 2인 1실 기준 / 항공 별도)
- 여행지 함부르크·브레머하펜(독일), 스타방에르·베르겐·오슬로(노르웨이), 예테보리(스웨덴), 코펜하겐·올보르(덴마크)
- 공연 테오도르 쿠렌치스 &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미샤 마이스키, 다니엘 호프 외
- 문의 클럽발코니 010-2098-5266 | 1577-5266 | www.clubbalcony.com





DONG HYEK LIM PIANO RECITAL

“저는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기 용이한 어린 나이에 러시아에서 10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레퍼토리는 저한테 고향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저는 주위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는 Made in Russia라고. 그런 고유한 저만의 성향이나 정서, 더 나아가 습관까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레퍼토리가 바로 2부에서 선보이는 러시아 작품들입니다.

프로코피예프 전쟁 소나타 7번은 한때 월기 넘쳤던 시절의 제 18번과도 같아서 이 곡으로 여러 콩쿠르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라흐마니노프 소나타는 비록 그보다 늦은 시기, 뉴욕에서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그동안 러시아에서 배운 것들이 토대가 되어 해석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과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전에 패기만만했던 시절 연주했던 곡들은,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그랬고, 이번에 연주하는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또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번에는 무언가 그때와는 또 다른, 더 많은 콘텐츠를 담고, 또 다른 스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제게 이런 호기심과 기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의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임동혁 -

YAMAHA

쇼팽과 러시아.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두 음악적 바탕이자 기둥이다. 그렇기에 쇼팽과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프로코피예프를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그에게 음악가로서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는 중요한 한 지점이 아닐까 싶다. 발라드와 소나타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도 오늘 무대의 무게감을 더한다.

프레데리크 쇼팽 발라드 1-4번

프레데리크 쇼팽(1810-49)은 마주르카, 폴로네즈, 크라코비아크 등을 작곡하며 음악에 고국 폴란드를 새겨넣었던 민족주의 음악가였다. 그런 만큼 폴란드의 민족주의 시인이었던 아담 미츠키에비치(Adam Mickiewicz: 1798-1855)의 시에 큰 관심을 가졌고, 그로부터 얻은 감흥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이들이 바로 네 곡의 '발라드'로, 이로써 '피아노의 음유시인' 쇼팽은 문학과 노래 장르였던 발라드를 기악곡에 붙인 첫 인물이 되었다.

<발라드 1번 사단조, Op. 23>(1835)은 미츠키에비치의 '콘라트 발렌로트'(Konrad Wallenrod)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중세 시대의 리투아니아 이교도로 설정된 가상 인물인 발렌로트는 튜턴 기사단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개종하고 훗날 고위직에 오른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뿌리를 자각하여 전투에서 자신의 군대에 큰 패배를 안겼고, 배신이 발각되어 결국 자결을 선택한다.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옥타브 연주의 서주 후 주저하는 듯한 제1주제와 숨겨둔 부인을 향한 사랑 노래와 같은 제2주제가 이어진다. 이 두 주제와 화려한 경과구들이 결합하여 거대한 서사시를 풀어나가고,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거대한 반음계적 하강 후 엄숙하게 마친다. 1836년에 쇼팽을 만났던 슈만은 그때의 대화를 이렇게 적었다. "나는 그의 모든 작품 중에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힘주어 얘기했다. '반갑군요. 나도 이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발라드 2번 바장조, Op. 38>(1836-38)에 영감을 준 작품은 미츠키에비치의 '시비테시 호수'(Świtezianka)이다. 시인이 자주 방문했던 작고 동그란 호수로, 현재는 벨라루스 서쪽에 있다. 먼저 6/8박자의 장-단-장-단의 단순한 리듬 위에 뱃노래 스타일의 소박하고 서정적인 첫 주제가 아련히 들려온다. 그리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듯 빠르게 오르내리는 음형과 두려움이 가득한 제2주제로 평화를 깨뜨린다. 이 두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간 후, 추억을 회상하듯 첫 주제를 꿈결같이 연주하며 마친다.

<발라드 3번 내림가장조, Op. 47>(1840-41)에 담겨있는 영감의 원천은 미츠키에비치의 '운디네'(Undine)이다. 너울거리는 물 위에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처럼 세련되고 화사하며 맑고 밝은 정취를 들려주어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고음과 저음이 대화하는 듯한 주제가 제시되고, 점차 걱정으로 달려간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여유와 우아한 품위를 즐긴다.

<발라드 4번 바단조, Op. 52>(1842)에 영감을 준 작품에 대해 알프레드 코르토는 미츠키에비치의 '부드리 집안의 세 형제'(Trzech Budrysów)를 언급했다. 세 형제는 보물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길을 떠나고, 후에 각자 신뫼감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이 곡은 내면적이고 서정적이어서 그의 녹턴이 연상된다. 병세가 악화되어 심신의 고단한 상태가 엿보이는 듯도 하다. 그럼에도 소나타 형식과 변주곡 형식, 론도 형식 등을 섞어 놓아 독특한 형식미를 갖추면서도 자유로움도 만끽하는 그의 만년의 완숙함이 녹아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 7번 내림나장조, Op. 83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작곡된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1891-1953)의 피아노 소나타 6~8번을 '전쟁 소나타'라고 부르지만, 이 곡들은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달랐다. 6번이 작곡된 때는 아직 소련으로 확전되기 전이었던 1939년으로, 건반을 주먹으로 치는 등 전쟁의 폭력성과 참상을 과감히 드러냈다. 그런데 정작 소련에서 전쟁이 벌어져 피난을 떠났던 1942년에 작곡된 7번은 전쟁 자체보다는 심적인 공포에 가깝다.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에 작곡된 8번은 두 번째 아내인 미라 멘델손(Mira Mendelson)에 대한 헌사였다. 이렇게 각 작품은 당시 처했던 상황과 동조하는 듯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

오늘 연주되는 <소나타 7번>은 조지아의 트빌리시(Tbilisi)에 피난 중이었던 1942년 가을에 완성되었으며, 모스크바로 돌아와 한 달이 지난 1943년 1월 18일에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에 의해 초연되었다. 리히테르는 단 나흘 만에 악보를 익히고 무대에 올랐다. "작품은 지극히 성공적이었다. ... 모두가 소나타를 다시 듣고 싶어 했다. 그들은 속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 작품의 정신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두 달 후에 스탈린상(2등 상)을 받았다.

1악장 '빠르고 흥분하여'. 거칠고 폭력적인 제1주제도 그렇고, 반음계로 진행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숨어버린 듯한 제2주제 또한 떨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그저 기계적인 동력에 끌려갈 뿐이다. 2악장 '느리고 따뜻하게'. 피난처에 온 듯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롭다. 그렇지만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 악장의 주제는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Op. 39> 중 '애수'(Wehmut)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가끔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이후 거대한 절정에 이르고, 두 음이 최면을 거는 듯 강박적으로 반복되면서 첫 선율로 돌아와 쓸쓸히 마친다.

3악장 '다급하게'. 독특한 7/8 박자로 2+3+2로 진행하는 이 악장은 타악기적 효과를 내는 피아노 음악으로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이다. 기계적으로 두드리는 타격의 연속은 사고를 마비시키고, 집착하는 저음 패턴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세뇌하는 것 같다. 세 개의 주제를 제시한 후 1악장을 잠시 회상하고, 다시 반대로 진행하여 아치 형식을 이룬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내림나단조, Op. 36 (개정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이었던 만큼, 작곡가로서도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특히 <피아노 소나타 2번>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에 대한 역량이 응집되어 있는 걸작으로서 자주 연주되고 있다.

1913년 1월에 휴가차 가족과 함께 로마를 방문한 라흐마니노프는 차이콥스키가 사용했던 집에 머물며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딸이 장티푸스 증세를 보이자 그는 작곡을 중단하고 베를린에서 두 딸의 치료에 집중했으며, 이 바노브카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이 제야 라흐마니노프는 중단된 소나타 작곡을 재개하여 9월에 완성했고, 그해 10월 18일 쿠르스크에서 자신의 연주로 초연했다.

이 곡은 당시 라흐마니노프가 심취해 있던 쇼팽의 두 번째 소나타의 영향이 보인다. 같은 Bb단조일 뿐만 아니라, Bb 베이스 효과도 도입했다. 쇼팽의 곡에서 조종(弔鐘)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 음은 라흐마니노프의 곡에서는 처음뿐만 아니라 고음에서도 응답하여 풍부한 배음 효과를 일으킨다. 하지만 쇼팽의 암울한 결말과는 달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작곡한 탓인지,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이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8년이나 지난 1931년에 과감히 손을 보았고, 본래 25분 길이의 곡이 19~20분 정도로 매우 축소되고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1940년에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두 개의 버전을 참고하여 새로운 버전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했다. 호로비츠 버전의 길이는 약 22분 정도이다. 오늘 연주회에서는 1931년 개정판이 연주된다.

1악장 '빠르고 흥분하여'. 불안감을 가득 머금은 강한 하강 제스처로 시작한다. 곧바로 역동적인 제1주제가 제시되고,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낭만적인 제2주제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하강 제스처

는 악장 전체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반복되며, 마무리까지 짓는다.

2악장 '빠르지 않게-천천히'.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악장으로, 여기서도 긴 호흡으로 하강하는 흐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에 저항하는 상승 제스처로 고조시키기도 하지만, 끝내 분위기를 역전시키지는 못한다.

3악장 '몹시 빠르게'. 2악장이 연상되는 짧은 전주로 시작한 후, 강한 하강 제스처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화려하고 반음계적인 진행으로 극적인 절정에 이르며, 강한 Bb 베이스가 울린 후 분주한 하강 제스처와 Bb 장조의 강한 화음으로 한껏 밝고 열정적으로 마친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Design your *Life* !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다양한 경험
클럽발코니와 함께하세요

FRIENDS

가입비: 무료

예매수수료 없이 예매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CREDIA

SMART

가입비: 3만원
유효기간: 1년

공연할인 5~30%
크레디아 및 파트너사 공연예매 시
(공연별 최대 4매)


수수료 면제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면제


매거진, 프로그램북 제공
클럽발코니 매거진 무료 배송(연 4회)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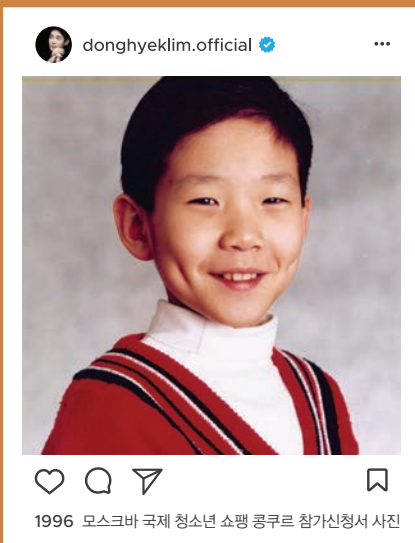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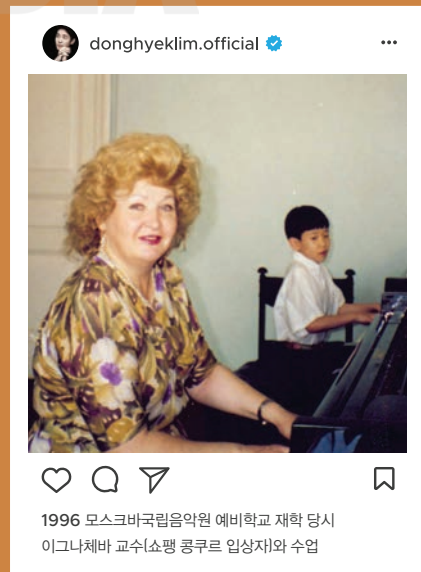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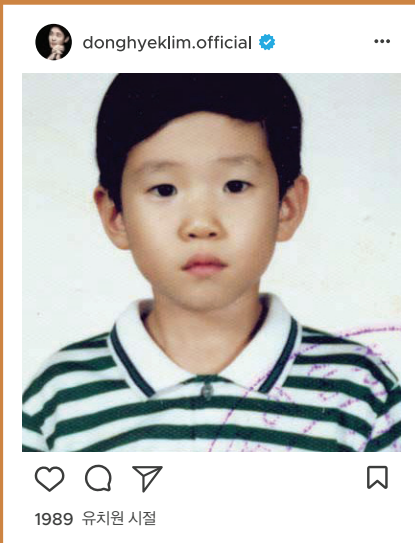
티켓오픈 SMS
티켓오픈 알림 SMS / 단독 선예매
(크레디아 기획공연 예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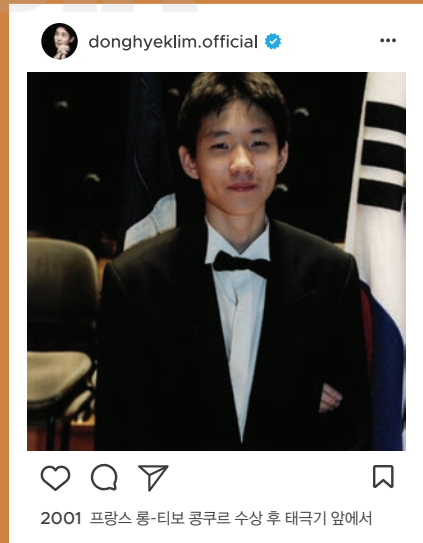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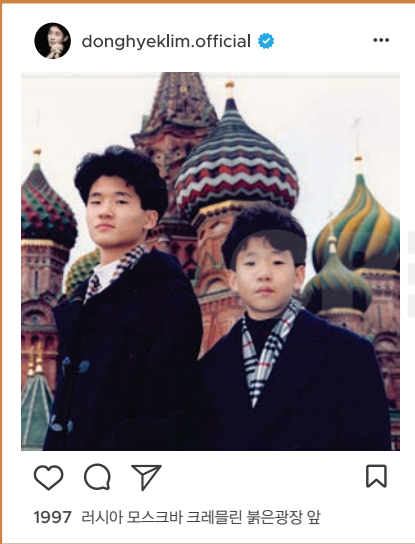
문화이벤트
лек처, 공연, 영화 등 이벤트 참여

FOC 제휴 할인
클럽발코니 제휴 파트너사 할인혜택 제공

 라칼라스 식사 10% 할인 (런치, 세트메뉴 제외) 02-521-332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

 예전레코드 음반 10% 할인 (당일 공연 CD 제외) 02-597-9536 예술의전당 음악당 1층







© SANDUNGK LEE

CR

피아니스트 임동혁

Dong Hyek Lim
Pianist

임동혁은 7세의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세 때 러시아로 이주,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임동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부터였다. 형인 임동민은 1위에, 임동혁은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두 형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듬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 상, 오케스트라 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 상, 파리음악원 학생 상, 마담 가비파스키에 상 등 5개 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2005년 제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형 임동민과 함께 2위 없는 3위를 수상했다. 또한 2007년 6월,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누구보다 임동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몇몇 음악 페스티벌에서 임동혁의 인상적인 연주를 지켜본 아르헤리치는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 임동혁을 초청하였으며, EMI클래식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그를 적극 추천하였다. EMI클래식은 아르헤리치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의 데뷔 음반을 출시하였고, 임동혁은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하며 EMI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후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4명의 연주자 중 임동혁만이 유일하게 2집을 출시하였으며, 이 음반 역시 프랑스의 ‘쇼크 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2008년에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3집을 발표했고 이후 2015년에는 워너 인터내셔널 클래식 레이블로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이 발매되어 그라모폰과 BBC매거진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2019년에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심포닉 댄스가 수록된 그의 5집 음반이 발매되어 호평을 받았고 2022년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 2곡을 녹음한 6집이 발매되었다.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동혁은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살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홀 등 전 세계 주요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또한 베르비에 페스티벌, 쇼팽 페스티벌, 루가노 페스티벌, 아르헤리치 함부르크 페스티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연주했다.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유리 테미르카노프 지휘의 샤프테페르부르크 필하모닉,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백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마스 지휘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22/23 시즌에는 데뷔 20주년 기념 슈베르트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쇼팽 LP음반 발매를 기념해 리사이틀을 가졌다.

임동혁은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 입학하여 레프 나우모프를 사사하였고, 그는 “임동혁은 황금 손을 가졌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 후, 하노버 국립 음대에서 아리 바르디 사사, 그리고 줄리어드 음대에서 엠마누엘 액스를 사사하였다. 임동혁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Acclaimed by audiences, critics and fellow musicians, Dong Hyek Lim is regarded as one of the finest pianists of his generation. Since winning the second prize at the Chopin Competition for Young Pianists in Moscow as the youngest participant of that year, he captured international attention.

Lim's performances at the Small and Great Halls of the Moscow State Conservatory, Salle Pleyel and Salle Cortot in Paris, the Lazienki Palace in Warsaw, the Konzerthaus in Berlin and with Martha Argerich at the Philharmonic Hall in Beppu, Japan, have won great acclaim. Also, Lim has appeared in many renowned festivals including Verbier in Switzerland, Klavier-Festival Ruhr in Germany, the 57th International Chopin Festival in Poland, La Roque d'Antheron, Montpellier Radio France and Piano aux Jacobins Festivals in France. He has performed with world's major orchestra such as NHK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St. Petersburg Philharmonic Orchestra, New Japan Philharmonic under conductors Charles Dutoit, Myung-Whun Chung, Yuri Temirkanov.

In 2001, Lim became the youngest pianist ever to sign a recording contract with EMI Classics and received the Diapason d'Or award in France for his debut album under the "Martha Argerich Presents" series. His second recording on EMI was awarded the Choc Prize by Le Monde de la Musique. Also, Lim achieved great success in his third album, playing Goldberg Variations by J.S Bach. His fourth album 'Chopin 24 preludes', with Warner, has been acclaimed by Gramophone and BBC Magazine. He released his fifth album which recorded with the BBC Symphony Orchestra and Martha Argerich.

Lim has won top prizes at various competitions. In 2000, Lim took the fifth prize at the International Busoni Piano Competition in Italy, which later became known as 'Busoni Shock' (the entire juries were replaced for the next year's competition). He went on to win the second prize at the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Japan later that year. In December 2001, not only did he become the youngest winner of the Premier Grand Prix in the history of the Marguerite Long-Jacques Thibaud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Paris, but also he won five other special awards. In October 2005, Lim participated in the 15th International Frederick Chopin Piano Competition in Warsaw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 took the third prize; tied with his elder brother Dong-Min Lim (no second prize was awarded). In June 2007, Lim participated in the 13th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shared the fourth prize with Sergei Sobolev (no first prize was awarded).

In March 2022, he released his sixth recording on Warner of Schubert Sonatas: No 20 in A Major D.959 and No 21 in B flat Major D.960, and toured a recital program of Schubert Sonatas. Highlights of Dong Hyek Lim's 2022/23 season include a recital tours and a concert with Martha Argerich.

Born in Seoul Korea in 1984, he began his musical training at the age of seven and moved to Russia at age ten to become a pupil at the Moscow Central Music School. He graduated in 1998 and continued studies at the Moscow State Tchaikovsky Conservatory with Professor Lev Naumov. Lim also studied in Germany with Arie Vardi at the Hochschule fur Musik in Hannover and the US with Emanuel Ax at the Juilliard School. He is now based in Berlin.

5년 만의 여제 귀환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ANNE-SOPHIE
MUTTER

LAMBERT ORKIS, PIANO

2024.3.13 WED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4.3.3.SUN 5PM 대전예술의전당 | 2024.3.12.TUE 7:30PM 광주예술의전당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티켓

R석 18만원 | S석 15만원 | A석 10만원 | B석 5만원

예매

Club BALCONY 티켓링크 interpark 티켓 예술의전당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KV.301 G장조 |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D.934 C장조 | 클라라 슈만 세 개의 로망스 Op. 22 |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P.110 b단조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4

Credia Classic Club 2024

POEM

노래가 된 시



3. November If You're a Flower

28. April Widmung · 9. June O Sole Mio

27. July Melody

- I. 4월 28일 '헌정'
- II. 6월 9일 '오 솔레 미오'
- III. 7월 21일 '멜로디'
- IV. 11월 3일 '그대가 꽃이라면'

테너 존노,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 피아니스트 조영훈



네 번의 일요일 오후 5시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 모든 좌석 55,000원

공연장 옆 잡화점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직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잡화점 덕분에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클래식 음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클래식 음악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는 분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힘든 월요일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이면
와 있는 편지 덕분에
힐링하며
화요일을 시작해요

공연장 옆 잡화점

늘 새롭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음악 이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공연의 비하인드나
연주자들 이야기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클래식 음악
입문자로서 흥미롭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악가들과 음악 이야기
늘 재밌게 보고 있어요

뉴스레터 <공연장 옆 잡화점>을 구독해주세요!

공연기획자는 무슨 일을 할까?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클래식 공연기획자들이 전하는 일터, 무대 뒷 이야기를 비롯하여,

기획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음악, 예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공연장 옆 잡화점> 구독하기

카메라어플로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또는, 검색창에서 [공연장 옆 잡화점]을 검색하세요.

credialetter.stibee.com



CREDIA SEASON 2024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4

CREDIA CLASSIC CLUB

4-6·7·11월, LG아트센터 서울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숨>

SOPRANO HERA HYESANG PARK RECITAL
<BREATHE>

2.13 (화) 롯데콘서트홀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DONG HYEK LIM PIANO RECITAL

2.15 (목) 롯데콘서트홀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ANNE-SOPHIE MUTTER IN RECITAL

3.13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DISNEY IN CONCERT <BEYOND THE MAGIC>

5.4 (토) ~ 5.5 (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정명훈 & 도쿄 필하모닉

MYUNG-WHUN CHUNG &
TOKYO PHILHARMONIC

5.7 (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협연: 조성진)

5.9 (목)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협연: 정명훈, 이지혜, 문태국)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FOREST>

YUHKI KURAMOTO CONCERT <FOREST>

6.7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DONG HYEK LIM

© Song/Wook Lee

HERA HYESANG PARK

© Banna Orlandi



ANNE-SOPHIE MUTTER

© Wagner Orlandi



DISNEY

© Disney



MYUNG-WHUN CHUNG

© PH Apple Orlandi



YUHKI

KURAMOTO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카운터테너 이동규 리사이틀
COUNTERTENOR DAVID DQ LEE RECITAL
8.28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DISNEY IN CONCERT
9월 중

정경화 바이올린 리사이틀
KYUNG-WHA CHUNG VIOLIN RECITAL
9.6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태국 첼로 리사이틀 <바흐>
TAEGUK MUN CELLO RECITAL <BACH>
10.26 (토)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EVGENY KISSIN PIANO RECITAL
11.20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조수미 콘서트
SUMI JO CONCERT
12.1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YUHKI KURAMOTO & FRIENDS
12.25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레디아 30주년 기념
실내악 콘서트
리처드 용재 오닐 & 양인모
& 장유진 & 문태국 & 김한
CREDIA 30TH ANNIVERSARY
CHAMBER MUSIC CONCERT
12.28 (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SARAH CHANG VIOLIN RECITAL
12.29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EONG-JIN CHO

© Stephen Hwang

EVGENY KISSIN

© Sasha Gusov

INMO 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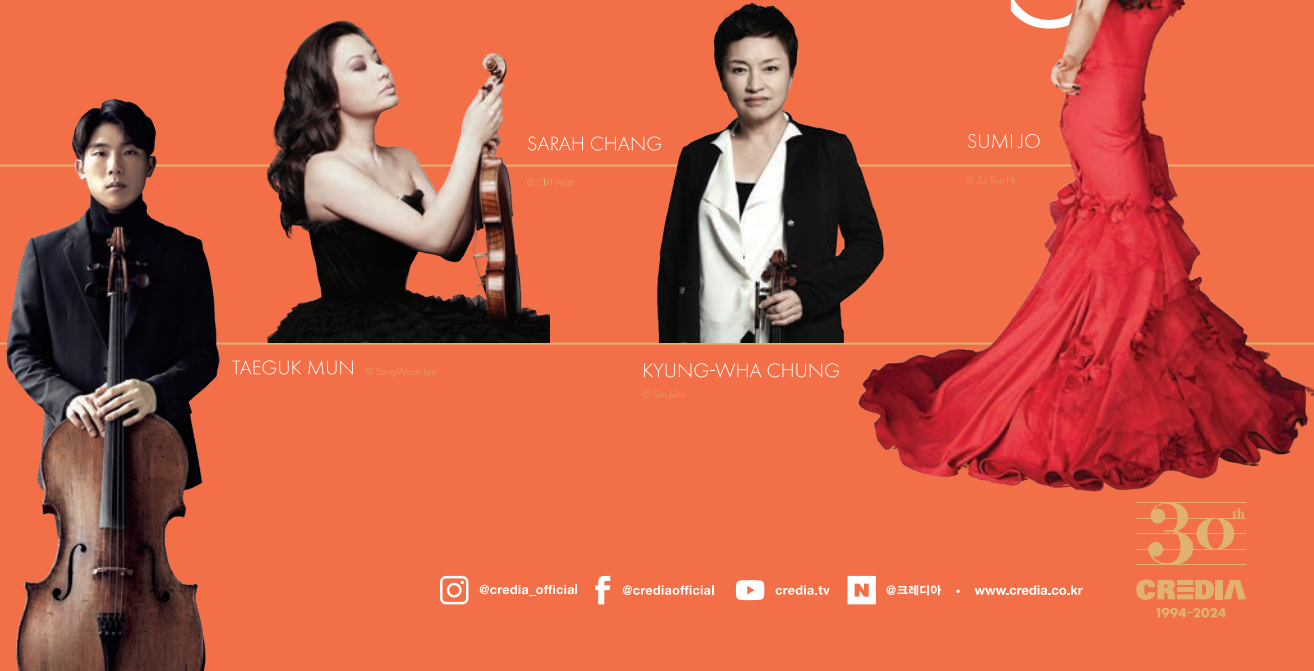
© 조동익스튜디오

RICHARD

YONGJAE O'NEIL

© SangHwa Lee

Anniversary



TAEGUK MUN

© SangHwa Lee

SARAH CHANG

© CHI Wan

KYUNG-WHA CHUNG

© Sim Eun

SUMI JO

© Jo Sang



@credia_official



@crediaofficial



credia.tv



@크레디아

www.credia.co.kr





SUBLIMAGE
LES EXTRAITS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강력한 리페어 효과

CHANEL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